

바닥 뚫고 내려간 물가...재난지원금 풀린 6월 반등할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하며 지난해 9월(-0.4%)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제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큰폭의 하락세를 보인 석유류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역대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면

4월 다시 0%대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석유류 가격 18.7%↓ 물가 상승 '발목'

지난달 '마이너스 물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 정부

각이 다른 품목에 비해 오른세가 두드러졌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돼지고기가 한 달에 3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 집에서 축산물을 소비한 영향으로 봤는데, 부분적으로 재난지원금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0.1% 상승하며 지난해에 이어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저물가장기화 '공급' 요인 커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여전히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 등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안 심의관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이지만 이번에는 수요측 원인이라기보다는 공급 요인이 크다"며 "석유류 하락도 이번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이를 두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저물가가 조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거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 전년동월비)



시경제금융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물가하락 압력의 확대는 각국의 봉쇄조치로 내수 부진 등 수요 측면의 충격과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물가가 코로나19 전에 양상과 국제유가 흐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휘발유 등 국내 석유류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소비자물가가 흐름 및 물가상·하방 리스크 요인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5월 소비자물가동향...작년 9월 이후 역대 두 번째 '마이너스' 정부 '디플레이' 우려 일축... 물가하락 압력 '이미 전세계 문제'

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물가 기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비 회복이 더딘 탓이다. 정부는 최근 유가가 반등하고 본격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달 물가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만에 '마이너스'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 1%대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 무상교육 확대도 공공부문 물가가 하락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8.7% 하락했으며 공공서비스도 1.9% 하락했다.

서비스물가도 0.1% 상승에 그쳤다. IMF 외환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9년 0.1%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외식물가도 전년동월대비 0.6% 상승에 그치면서 부진했다.

식재료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한 가운데 축산물물은 7.2% 오르면서 큰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급등...올 하반기 하락"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공급 증가...수요는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 하반기에 돼지고기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수요는 감소가 예상돼 가격 하락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148만마리다. 이는 평년 대비 약 1.0% 많은 수치다. 5월 돼지 도축마릿수는 140만9000마리로 평년(138만7000마리) 대비 1.5% 증가했다.

올해 5월 중순(1월1일~5월20일)까지 돼지고기 수입입량은 13만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평년 동기 대비 22.0% 감소했다. 4월말 기준 육가공업체 등의 재고물량은 18만톤으로 전년 대비 18.0%, 평년 대비 69.4% 증가했다.

수요를 살펴보면 2월 하순 이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3월과 4월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0.5%, 9.5% 올랐다. 5월 들어서도 가정 소비가 지속되고, 재난지원금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5월 도매가격은 kg당 5115원으로 전월 대비 19.3%, 평년 대비 6.8%, 전년 대비 22.9% 상승했다.

5월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12.5%, 전년 대비 15.0% 오른 2273원/100g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계절적으로 6월까지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라며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과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의 올 2분기 관측정보에 따르면 2020년 4월말 기준 자돈(0~2개월령), 육성돈(2~4개월령) 마릿수(이력제 기준)가 평년 대비 각각 4.4% 많다.

2020년 하반기 돼지 도축마릿수(879만6000마리)는 평년(852만3000마리)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상반기 도축마릿수(898만3000마리)도 평년(850만8000마리) 대비 5.6% 증가 전망되는 등 평년 보다 많은 물량의 공급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모돈 감축 및 임신조절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발 '스태그디플레이션' 오나

물가하락·경기침체 동시에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마저 역대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디플레이션'(Stag-Deflation)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향후 물가하락이 코로나19 회복의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며 지난해 9월 -0.4%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스태그디플레이션은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스태그네이션(stagflation)과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의 합성어다.

이같은 스태그디플레이션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1980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며 밝혔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락다운(Lockdown)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세계 교역 감소도 우려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했으며 교역량이 전년대비 1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



1.3%를 기록했으며, 5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3.7% 감소해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졌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0.3% 하락했으며 근원물가도 0%대에 머물러 수요감소에 따른 물가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디플레이션 우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부족에 의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그해 일정기간 지속됐을 때를 말한다"며 "이번에는 원인 자체가 수요측 원인이라기보다는 석유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이고, 또 이번달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이걸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을 크게 하락시킨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물가하락 지속에 따른 스태그디플레이션을 경계했다.

김 차관은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하락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고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vicious cycle)의 고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호 기자

日 '韓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지

한국 측 요청 시한 지나서야 "종합평가 필요" 입장 되풀이

가자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수출관리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할 것" "한국과는 확실하게 대화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자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에 대해선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중

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자야마 경산상은 또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논의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과의 만남을 밝히거나 한국의 향후 동향을 예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로이터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결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달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지난해 7월부터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 규정 마련

휴업수당 용지도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완화된 기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수당 지급조치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휴업수당을 융자받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 정책도 담겼다.